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Since 1908.5.1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 Home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22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4. 구세주를 아는 이들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아무리 높아도 다 덮어주고 아무리 하찮아도 다 감싸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이 시간, 이미 지나가버린 일들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은총과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위세를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첨하는 말을 달콤하게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러서야 함을 아쉬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영적 진보의 계기로 삼는 믿음을 허락해주십시오. 느닷없이 닥쳐온 재해로 말미암아 살 희망을 잃어버린 파키스탄과 과테말라의 당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호10:12 …… 인도자

♠ 교 독 문 …… 13. 시편34편 …… 다함께

♠ 영 광 송 ……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함께

대표기도 …… Ⅰ. 이혜인 선생 Ⅱ.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330.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 다함께

성경봉독 …… Ⅰ. 딛2:11-15 …… 인도자
Ⅱ. 시107:23-32 김훈동 권사

찬 양 …… 성가대

말 씀 …… **Ⅰ. 지향점** …… 김기석 목사
Ⅱ. 소원의 항구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같이

헌신의 찬송 …… 381. 충성하라 죽도록 …… 다함께

헌금봉헌 …… <방민/김재현/홍헌정: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 다함께

♠ 봉 헌 송 …… 356. 성자의 귀한 몸(4)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때는 수고로 마음을 낮춰주시고, 세상살이에 지쳐 비틀거릴 때는 말씀으로 일으켜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 하나가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10월 동호회 모임	에베소서 강해(23)/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성도의 사귐!	기도 : 백혜숙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최예원 선생 구성실 장로	인도자 박미영 집사

10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용진	조문규	이순정	최영혜	박혜경
	헌금위원	한상익	김중수	하현철	유영남	이기분	최숙화

▣ 믿/음/으/로/읽/는/글/

손에 손 잡으면 강강수월래가 됩니다

손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일할 따름.
손은 움켜쥐는 힘이 펼치는 힘보다 셉니다.
움켜쥘 때 이기적이라면, 펼칠 때 이타적입니다.
손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일하는 손은 정직하지만,
얻은 것을 감추는 것도 손이 하는 일입니다.
나눔은 손을 깨끗이 하는 일입니다.
나눔은 부끄러움을 씻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 손 가득 움켜 내게로 당겨오지 않고
들어 이웃에게 드리면 넉넉한 나눔의 손길이 됩니다.
거룩한데 올리듯 높이 들어 나누는 손길은
나눔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서로 손 마주잡기
손에 손 이어쥐기
손에 손잡으면 강강수월래가 됩니다.
네 손은 내게 힘이 되고,
내 손은 네게 힘이 되는 아름다운 전선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힘을 네 손을 통해 찾아내고,
네 마음에 감추어진 힘을 내 손에서 발견하는 신비.
손에 손잡으면 그렇게 마음이 통해서
손길이 마음길이 되기도 합니다.
차가운 손끼리 만나서 더운 손이 됩니다.
손에 땀이 차도록 함께 하면
맞잡은 손끼리는 나아갈 길도 절로 압니다.
맞잡은 손으로 알아가는 세상 길, 인생 길.
혼자 부르쥐는 단주먹의 외로움을 생각하면
그 손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쥐는 주먹의 뜨거움.

나누는 손이 아름답지만, 가난하여 나눌 것이 적은 손은 순정합니다.
가난보다 더 깊은 기도는 없음을 빈손이 알려줍니다.
일하는 손도 아름답지만
쉴 때 쉬면서 그 손을 조용히 살피는 성찰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일만하다 죽으라는 인생 아닌 것을
빈손의 묵묵함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몸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부지런히 살아가는 손에게
몸이 하는 대답도 있어야 합니다.
존재가 두루 무상해서 하루하루 나이 먹다 보면,
힘없이 앙상해진 손을 가슴에 품어 안고 살아온 날들
되돌아보게 될 테지요.
손이 기억하는 한 평생이—선한 것이건 악한 것이건,
그것만으로 충분했다고 할 수 있을까?
가난을 위해서 쉬지 말고,
맑고 투명한 존재와 마음을 위해 쉬는 손을,
나태해진 손이 아니라 성찰과 기도로 간절해진 손을 꿈꾸어야 합니다. 마음 곳간이 넉넉해지면 손은 가난 속에서 오히려 여유로워집니다.
그것을 일컬어 청빈이라 합니다.
청빈의 서늘한 손끝을!
짐승의 앞발은 할퀴고 때리고 찢고 내달립니다.
사람의 손도 때로 그러기는 하지만, 다툼 없이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손들이 말리고 지키고 가꿉니다.
사람의 손은 화해를 말할 줄 압니다.
내 손이 비굴하게 손 비벼 애걸하기 바라지 않는다면
네 손이 항복을 말하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아는 까닭입니다.
두려움이란 놈은 폭력과 비겁의 두 얼굴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에 떠는 손과 무력하게 마주잡은 손조차 무서워서,
죽임을 지시하고 교사하는 손이 있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는 존재는 하수인입니다.
권력의 손은 상대를 지목하는 깨끗한 손가락질입니다.
화살표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춤사위도 손끝으로 만드는 것을.
(판화가 이철수님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2005년 1월호에 쓴 글입니다)

▣ 마/음/으/로/읽/는/글

동반자로서의 기도에 대하여

한 사부가 말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요."

그저 무턱대고 일에 착수했을 때, 우리는 실제로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모를 때가 많다.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이런저런 계획에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지만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실제로 다른 것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 어쩌면 그에게는 자신의 진실과 대면할 수 있게 해주는 침묵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또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해치는 것을 얻는 데 몰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부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행동하지 않도록 기도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을 기도로 뒷받침하면 그 활동들은 복을 가져다줄 것이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동반하면 우리는 행운의 손길을 얻게 될 것이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내적 자세를 바꿔준다.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가 위해서 일할 때, 나는 내 행동의 위험성을 못보고 넘어간다. 나는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기도는 나의 동기를 순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내 행동을 좀더 효과적이고 깨끗하게 만든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방현복 방문성 박혜경 한상익 정영선 이한림 김명희 박영숙 박옥순 안정숙 박정숙 김재흥 최희영 이은옥 노용래 차혜심

월정헌금:

표명화 김창원 정지은 이봉배 송의섭 권혁순 박혜경 정원석 김현영 배부례

감사헌금:

김철수 유영남 노용래 백용식 노미향 김성자 김종훈 안경숙 정원석 김현영 김애경 박성수 이한림 김명희 조항범 오현정 이희균 김영한 김용길 최영혜 박영균 최호정 권채영 박옥겸 김윤수 최주환 권사 가족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하 재 두	이 인 웅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배 부 례	김 영 한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재 문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김 명 순	문 영 혜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옥 순	조 병 주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김 경 수	임 창 선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송 의 섭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최 희 정	최 희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강 순 배	이 순 정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야 외	안 길 상
가버나움	구 명 자	안 홍 숙	정 현 주	구 명 자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임 수 연	김 희 우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안 경 숙	박 옥 식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김 성 자	배 삼 순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박 혜 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회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주십시오.
2. **동호회 :** 오늘 오후에는 각 동호회 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생태동호회는 선유도로 떠납니다.
3. **구호헌금 :** 파키스탄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다음 주일에 구호헌금을 봉헌합니다. 정성껏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4. **나들이 :** 속장·인도자들과 도서관 봉사자들이 18일(화) 대청호 근처의 '청남대'로 가을 나들이를 떠납니다. 아침 9시에 떠납니다.
5. **기독교환경대학 :** 10월 25일(화)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함께 하는 기독교환경대학을 엽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 **신앙실천 :** 테러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은 중보기도를 드릴 때 자랍니다.

   * 식당 봉사 : 나사렛 속
   * 식사 대접 : 노용래 집사 차혜심 권사
   * 헌화 : 한완식 장로 임정자 권사 (결혼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